

‘아기 호랑이’ 눈도장 ‘왕’

KIA-두산 시범경기 신인·이적생 위주... 선취점 기선 제압

오정환 공수 활약... 유승철 2이닝 무실점 1군 진입 청신호



KIA 타이거즈 ‘신예 선수’들의 여필 무대가 펼쳐졌다. KIA가 14일 챔피언스필드

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2차전에서 2-5 역전패를 당했다.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고참’ 임창용이 두산 김민혁과 최주환에게 연달아 투런포를 맞으면서 승리를 내줬다. 쪼잔한 신예 선수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다.

전날 주전 선수들을 총출동시키며 ‘다시 보는 한국시리즈’ 분위기를 연출했던 KIA는 이날 전혀 다른 라인업으로 두산을 상대했다.

‘고졸 투기’ 오정환(유격수)을 투타자로 해서 오준혁(좌익수)-최원준(우익수)-정성훈(지명타자)-김주형(3루수)-유민상(1루수)-이영욱(중견수)-한승택(포수)-홍재호(2루수)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오정환, 오준혁, 김주형, 홍재호는 오키나와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멤버들이고, 정성훈·유민상·이영욱은 올 시즌 새 유니폼을 입고 백업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적생들이다.

주전 멤버들 위주로 경기에 나선 두산에 무기가 실리는 경기였지만 초반 흐름은 KIA가 주도했다.

대만 캠프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기회를 잡은 오정환이 프로 첫 타석에서부터 두산 새 외국인 투수 후랭코프를 상대로 좌측 안타로 출루한 뒤 2루 베이스까지 홈쳤다. 오정환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

◇광주전적(14일)

두산 000 004 010	5
KIA 001 000 001	2

▲승리투수 = 유희관(1승) ▲패전투수 = 임창용(1패) ▲홀런 = 김민혁 1호(6회 2점) 최주환 1호(6회 2점·이상 두산)

라냈고, 수비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며 눈도장을 찍었다.

선취점도 KIA의 몫이었다. 3회말 1사에서 정성훈이 2루타로 출루했다. 김주형이 우익수 플라이로 몰려갔지만 유민상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1-0이 됐다.

마운드에서는 유승철이 눈길을 끈 신예 선수였다.

이날 선발로 나선 양현종이 3이닝 2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물러난 뒤, 고졸 2년 차 유승철이 마운드에 올랐다.

캠프 연습경기에서 10이닝을 던지며 2.7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유승철은 김재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자신의 시범경기 첫 이닝도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았다. 5회에는 1사 이후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변화구로 두 번째 삼진을 잡아내는 등 2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자신의 등판을 마무리했다. 유승철은 시범경기에서도 목격한 직구의 위력을 보여주며 1군 진입에 청신호를 켜었다.

한편 ‘동성고 선후배’인 두산 김민혁과 최주환은 임창용을 상대로 연달아 투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고향에서 팀 역전승의 주역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함성소리 내 것 아닌줄”

지난 13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시범경기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7회 말 2사,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KIA 정성훈의 선글라스에 경기장이 비치고 있다.

15년만에 KIA 김백 정성훈 “팬 환호성에 기분 새로워... 좋은 모습 보이겠다”

“동점타 상황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15년 만에 타이거즈팬으로 돌아온 KIA 내야수 정성훈은 지난 13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을 통해 고향 팬들 앞에 다시 섰다.

7회초 1루수 김주환의 대수비로 들어갔던 정성훈은 7회말 2사에서 처음 타석에 섰다. 정성훈이 등장하자 2855명이 자 리한 관중석에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1999년 해태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정성훈은 2003년 현대와의 트레이드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후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중의 한

명으로 활약했던 그는 지난해 LG에서의 방출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타석에 섰다.

아쉽게 떠나보내야 했던 ‘아기호랑이’가 20년 차 베테랑이 되어 돌아오자 팬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를 반겼다. 타석의 정성훈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14일 경기 전에 만난 정성훈은 “앞선(이명기) 타석에서 동점이 이뤄졌는데, 동점타라서 팬들이 환호하는 줄 알았다”며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범경기에서 환호성도 나오고 기분이 새로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성훈은 팬들의 함성에 응답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으며 첫 경기를 돌아왔다.

그는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집중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 타석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고민이다. 생각이 많아져서 머리로 복잡하다. 빨리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성훈은 자신의 각오대로 이날 4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나와 3회 1사에서 2루타를 때리며 선취 득점의 발판을 닦았다. 첫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냈다.

그리고 관중석의 팬들은 정성훈의 타석에 돌아올 때마다 환영의 박수와 응원

의 함성을 보내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7선발까지 나왔다 120승도 가능해”

▲이미 7선발까지 나와 있어요 = 시범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자신감과 의욕이 넘친다. 시범경기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김기태 감독은 “시범경기를 할 때는 선발진이 다 구성되었다. 선수들끼리는 다 짜냈다. 6선발은 물론 7선발까지 나왔다. 다들 단질 자신들은 있다. 120승도 가능한 분위기다”라고 웃었다.

▲벌거벗은 기분입니다 = 짧은 머리가 어색한 ‘안방 마님’ 김민석이다. 풍성한 머리를 자랑하는 김민석은 이번 시범경기를 앞두고 김기태 감독의 권유로 머리를 짧게 잘랐다. 짧은 머리가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김민석은 “머리를 습관적으로 넘기는데 어색하다. 벌거벗은 기분이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무조건 우승 한다고 그랬어 = 김중모(사진) 전 수석코치가 14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그는 이번 시즌 KBC 야구

해설 위원으로 그라운드 돌아온다. “그라운드로 완벽히 복귀는 아니지만 현장에 나오게 된 것은 좋다. 지역 방송이니까 가끔은 사투리도 섞어가면서 편안하게 해설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시즌 KIA의 야구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끝나고 난 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다. 한 달 기량 경기를 쉬다가 야구를 하면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타이거즈 불패신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망간 게 아니라 그만두려고 했죠 = 정성훈에게는 공포의 훈련이었다. 1999년 해태를 통해 프로에 입단했던 정성훈은 당시 김중모 타격 코치의 일대일 지도를 받았었다. 재능있는 신인 선수를 키우기 위한 특별 방안이었지만 고풍 신인에게는 힘든 훈련이었다. 김중모 위원이 당시를 돌아보며 “훈련하자고 광주일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타났었다(웃음). 신인 때 마음으로 하면 정성훈도 이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옛 제자를 응원했다. 정성훈은 “그때 도망간 것은 아니다. 야구를 그만할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갖는 데 훈련이 너무 힘들었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달 없어도 즐기자” 한국 ‘종합 10위’ 목표 수정

정진완 선수단 총감독 “선수들 메달 부담감에 마음고생 커”



“한국 선수단의 이번 평창 동계패럴림픽 목표를 수정하겠다. 신의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 같다. 태극전사들이 이미 국민의 성원에 보답했다. ‘메달 없어도 즐기자’라고 선수단에서 결의했다.”

2018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의 총감독을 맡은 정진완 이천훈련원 원장은 13일 저녁 강릉 올림픽파크 내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한 도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의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한국은 애초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 종합 10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에 출전한 신의현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책임지는 시나리오였다. 동메달 2개는 아이스하키와 휠체어컬링이 각각 따줄 것으로 예상했다.

장애인 노르딕스키의 간판 신의현은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15km 좌식 종목에서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인 동메

달을 수확했다. 하지만 애초 금메달을 예상했던 바이애슬론 남자 7.5km와 은메달 예상 종목이었던 바이애슬론 남자 12.5km에서는 각각 5위에 머물렀다.

한국 선수단의 목표 수정은 예측대로 들어맞지 않은 것보다는 정량적 메달 수치가 선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줬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동원 선수단장은 “메달 압박에 단장인 나도 잠이 안 올 정도였는데, 신의현 선수는 얼마나 더 마음고생이 컸겠는가”라며 목표 수정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신의현은 자신이 금메달을 받든 시 때나야 종합 10위 목표를 이룬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2, 3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완 총감독은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 만에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건 ‘기적’이라고 캐내다 단장이 말해줬다”며 “신의현 선수가 사격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종목 모두 5위에 오른 것도 대단한 것이다. 메달 없어도 즐기자고 코치진과 감독들에게도 말했고,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 선수단 오늘 귀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경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 예정대로 귀환한다.

정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20명의 선수단과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4명 등 총 24명은 지난 7일 경의선 육로로 방남해 이번 평창 대회에 참가했다.

북한 선수단은 장애인 노르딕스키에와 알트카드(특별출전권)로 출전한 마유철과 김정현의 경기가 14일 크로스컨트리 스키

린트를 끝으로 경기 일정을 마친다. 이에 따라 마유철과 김정현을 포함한 선수단 20명은 15일 예정대로 북한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한 하지장애 선수인 마유철과 김정현은 지난 11일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 종목에 나란히 출전했다.

북한 선수단과 달리 대표단은 개회식까지 참석하고 귀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은 북한 선수단에 오찬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시각 장애인, 가이드 러너에게 달려가다 러너 유재형이 넘어지자 달려가고 있다.

14일 오후 강원도 정선알파인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남자 회전 시각장애 경기에서 황민규(뒤)가 피니시라인 부근에서 가이드

/연합뉴스

전남기술과학고 펜싱부

전국종별 선수권 우승

전남기술과학고 펜싱부가 제47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 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정미(3년), 박한휘(2년), 장보련(2년), 김세빈(1년)으로 꾸려진 전남기술과학고 펜싱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진행된 이 대회 여고부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서울체고를 45-30으로 제압하며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김정미와 김세빈은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 나란히 출전해 15-2로 김정미가 금메달을, 김세빈이 은메달을 따내며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충주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전 펜싱 단체전에서 전북 이리여고를 제압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전남기술과학고는 이번 대회에서도 여고부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김용배 전남기술과학고 코치는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 집중 훈련을 통해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선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